

第6次 韓-日 學術討論會

韓國 및 日本의 相續稅法

日 時：2010年 11月 11日(木)
場 所：釜山地方稅務士會會館

釜山地方 稅務士會
近畿稅理士會

目 次

1 會長人事

I 釜山地方稅務士會 會長	/ 4
II 近畿稅理士會 會長	/ 6

2 發表文(韓國)

I 相續稅 總說	/ 16
II 民法上 相續制度	/ 18
III 課稅對象財產	/ 28
IV 相續稅 計算	/ 36
V 相續稅 課稅價額	/ 38
VI 課稅標準과 相續控除	/ 48
VII 申告納付 및 決定	/ 72
VIII 相續財產 評價	/ 86
IX 相續稅 計算事例	/126
X 相續稅 課稅狀況	/174

3. 發表文(日本)

I 相續稅 總說	/190
II 民法上 相續制度	/196
III 課稅對象財產과 非課稅財產	/216
IV 相續稅 計算	/230
V 相續稅 申告節次	/250
VI 相續財產 評價	/256
VII 相續稅計算의 具體的事例	/306
VIII 相續稅 課稅狀況	/374

4 質疑應答

I 韓國側에서 日本側으로 質問	/392
II 日本側에서 韓國側으로 質問	/400

회 장 인 사

긴끼세리사회 구보 나오미 부회장님을 비롯한 국제부원 여러분들의 부산 방세무사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남이 거듭 될수록 정은 깊어가고정이 깊어지니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더구나 이번 방문은 예년과 달리 2박 3일의 일정으로 와 주셨으니 좀 더 깊고 진한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즐겁고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술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양국의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값진 노력으로 양회의 학술 토론회가 더욱 성숙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일본, 중국의 동북아는 경제적으로나 국가 리더십 면에서 세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상호이해에 바탕한 선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때이고,우리 세무사들도 그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 월 14 일에는 서울에서 세계수도권 세무사 정상회의가 있었고 11 월 23 일에는 호주에서 AOTCA 가 개최됩니다. 각국의 세무사 제도 발전과 친선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일본세리사회 연합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의 학술토론회 주제인 「양국의 상속·증여세」는 적절한 테마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한 토론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내일은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2010. 11. 11.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김 성 경

회 장 인 사

오늘 김성겸 회장님을 비롯한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과 이곳 부산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지만,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학술토론회를 위하여 사전 준비에 진력을 다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지방세무사회와 긴끼세리사회와의 우호관계는 1991년에 시작되었고, 2005년부터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보다 충실한 친선관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학술토론회는 매년 중요한 테마를 선정하여 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테마는 한국과 일본의 상속세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실무상 어떻게 취급하는지 비교 검토하여, 양국의 상속세제도의 특징이나 그 관련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학술토론회가 양회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깊게 하는 뜻 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귀 회가 더욱 더 발전하고 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건승과 융성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0년 11월 11일

긴 끼 세 리 사 회

회 장 미야구치 사다오